

출장보고서 (APET Conference)

I. 출장개요

- 출장자: 김영철 부연구위원(KDI)
- 출장국가/장소 : 태국 방콕/Chulalongkorn Univ.
- 출장기간 : 2011년 06월 21일 ~ 06월 25일 (출, 입국일 포함)
- 출장비용: 숙박비, 만찬 부담 (PET Conference 주최측)
일비, 식비, 항공비, 보험료 부담 (KDI)
- 출장목적: 공공경제 및 재정학 관련 세계적 수준의 이론경제학자 모임인 공공경제이론학회(Association for Public Economic Theory, APET)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노동시장 신호(Signaling)와 정체성(Identity Choice) 관련 연구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논평과 자문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networking 구축

II. 컨퍼런스 일정

Day 1: 6/22/2011

8:00 am - 5:00 pm Trip to the ancient capital Ayutthaya

Day 2: 6/23/2011

9:00 am - 10:30 am Session 1: History and Culture

10:45 am - 12:15 pm Session 2: Trade

2:15 pm - 3:45 pm Session 3: Demography and Human Capital

4:00 pm - 5:30 pm Session 4: Networks, Learning, and Markets

6:30 pm - 9:00 pm Conference Dinner- Dusit Thani Hotel.

Day 3: 6/24/2011

9:00 am - 10:30 am Session 5: Conflict

10:45 am - 12:15 am Session 6: Governance

2:15 pm - 3:45 pm Session 7: Group Inequality

4:00 pm - 5:30 pm Session 8: Politics and Poverty

6:00 pm - 9:00 pm Farewell Dinner - boat cruising down the Chaophraya River

III. 논문발표

- 발표 세션: Session 7: Group Inequality
- 논문 제목: Stereotypes and inequality: a 'signaling' theory of identity choice
- 논문 저자: Young chul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Glenn C. Loury (Brown University)

- 주요 내용(초록): We develop an identity choice model based on the stereotyping and signaling framework. Inequality of collective reputation between exogenous groups in equilibrium is due to feedback between group reputation and individual human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Arrow, 1973; Coate and Loury, 1993). But it entails no positive selection into or out of the groups and human capital cost distributions among groups' members are equal. When group membership is endogenous, and if the groups'reputation differ in equilibrium, the favored group not only faces great human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but it also consists disproportionately of low human-capital-investment cost types, who gain more from joining a favored group, thereby causing human capital cost distribution between groups to endogenously diverge, reinforcing incentive-feedbacks. We examine the existence and stability of the stereotyping equilibria with group membership endogenous. We prove that inequality deriving from stereotyping of endogenously constructed

social groups is at least as great as the inequality that can emerge between exogenously given groups.

IV. 노동시장 신호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자문

- 입시와 사교육 수요 등 교육제도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교육의 노동시장 효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시스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음.
- 따라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의 신호(signaling) 효과와 입시의 노동시장 사전적 선별(screening)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이론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서열과 사교육 과열, 고등교육 경쟁력 약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노동시장의 신호(signaling)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주요한 학문적 토대가 되리라 여겨짐.
- 본인은 컨퍼런스 참가들과 이 문제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함.
 1. 국가마다 교육시스템이 상이하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신호기능하는 방식도 다양하므로 각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교육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2. 반면, 국가 주도의 교육시스템과 민간에 의존적인 교육시스템 간에는 교육경험(졸업장, 학점 등)이 노동시장에서 역할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3. 민간에 의존적인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입시경쟁의 과열 현상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대학간 서열체제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음.
 4. 좋은 대학 졸업을 통하여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평판(Reputation) 효과를 얻고자 하는 유인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는 한, 사교육 과잉 투자를 통한 사회적 비효율성 제거하는 막기 어려움.